

2025 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메시지 12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비좁은 길을 감

성경: 골 2:6-7, 마 7:13-14, 계 3:7-14

[골 2:6-7]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7)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 나게 하십시오.

[마 7:13-14]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파멸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며, (14)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계 3:7-14]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거룩한 이, 참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록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8) 나는 너의 일을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9) 보아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 주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11)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12)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13)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14)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아멘이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이가 이렇게 말한다.

I. 골로새서 2 장 6 절과 7 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 나게 하십시오.”라고 말한다.

A.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누리도록 할당된 몫이시다(골 1:12).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이신(고후 3:17, 비교 4:5)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영 안에 거하시면서(딤후 4:22)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신다.

[골 1: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고후 3: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계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고후 4:5]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딤후 4: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 B.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므로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행한다는 것은 살고 활동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에 살면서 그 땅의 모든 풍성한 소산물(출 3:8)을 누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살고 활동해야 한다(엡 3:8).

[출 3:8]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 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좋고 넓은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엡 3: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 C.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옴으로 그분을 받아들인다. 찬송가 1048 장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 하나님 어린양이신 주께 나 지금 옵니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 우리는 매일 아침 동일한 방식으로 그분께 나옴으로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한다 — “주님,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의 상태와 상황에서 저의 모습 그대로 당신께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 II.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파멸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 마 7:13-14.

- A.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생명의 살아 있는 보상으로 이끄는 길 (행 9:2, 19:9, 23, 22:4, 24:22) — 진리의 길(벧후 2:2), 바른 길(15 절), 의의 길(21 절), 평안의 길(눅 1:79, 롬 3:17), 구원의 길(행 16:17), 하나님의 길(마 22:16, 행 18:26), 주님의 길(요 1:23, 행 18:25) 이다.

[행 9:2]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그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나 여자나 모두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었다.

[행 19:9]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므로, 바울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에게서 벗어나 두란노 학원에서 날마다 토론하였다.

[행 19:23] 그 무렵 그 길에 관하여 적지 않은 소란이 일어났다.

[행 22:4] 나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이 길에 속한 사람들을 박해하였고, 남자나 여자나 모두 결박하여 감옥에 넘겼습니다.

[행 24:22] 벨릭스는 그 길에 관한 것들을 더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재판관을 연기하며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여러분의 사건을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고는,

[벧후 2:2]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을 따를 것이며,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욕을 들을 것입니다.

[벧후 2:15] 그들은 바른길을 버리고 빗나가, 브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였습니다.

[벧후 2:21]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 나서 그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알지 못하였던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롬 3:17] 그들은 평안의 길을 알지 못한다.

[롬 16:17]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십시오.

[마 22:16]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주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 18:26] 그 노예가 엎드려 절하며 ‘참아 주십시오. 내가 다 갚겠습니다.’라고 하자,

[마 1:23]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마 18:25]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주인이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하니,

- B. 파멸로 이끄는 넓은 길은 타고난 취향을 만족시키는 세상적인 체계를 따른다. 그것은 큰 무리를 얻고, 사람의 경력을 유지하며 사람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 마 13:31-33, 계 2:13, 20, 17:4-5.

[마 13:31-33]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32)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도 작으나, 자라서 푸성귀보다 커져 나무가 되니,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입니다.” (33)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 말 속에 몰래 집어넣어 그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계 2:13] 나는 네가 거하는 곳을 안다. 그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너는 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으며, 심지어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하던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계 2:20]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것이다. 그 여자는 여신언자로 자처하면서 나의 노예들을 가르치고 미혹시켜 음행하게 하고 우상 앞에 바친 희생 제물을 먹게 한다.

[계 17:4-5]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으며 (5) 그 여자의 이마에는 ‘비밀,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 C. 생명으로 이끄는 비좁은 길은 신성한 규정들을 따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이끌어 영적인 요구들을 이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한다 — 롬 1:9, 히 11:5-6, 계 1:1-2, 9-10.

[롬 1:9]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여러분을 얼마나 끊임없이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히 11:5-6]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가셨으므로, 그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다는 증거를 지녔습니다.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시다’라는 것과 그분은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계 1:1-2]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천사를 자기의 노예 요한에게 보내시어, 이 계시를 표징들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계 1:9-10]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밧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10) 주님의 날에 내가 영 안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 D.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주님의 형언할 수 없는 생명과 사역의 본에 따라 항상 좁고 비좁은 생활과 일을 하는 것이다 — 요 5:19, 30, 4:34, 17:4, 14:10, 24, 7:16, 18.

[요 5:19]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요 5:30]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므로 나의 심판은 공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요 4:3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요 17:4]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내가 완성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요 14: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 14:24]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 7:1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요 7:18]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은 참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 E.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서 행해야 한다. 영 안에서 행하는 것은 우리를 제한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하여 활력적이고 건강한 믿는 이들이 되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생명의 길을 취하게 한다 — 롬 8:4, 갈 5:16, 22-23, 살전 5:16-18.

[롬 8: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갈 5:16] 내가 말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갈 5:22-23] 그러나 그 영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자와 선함과 신실함과 (23) 온유와 자제이니, 이런 것들을 반대할 율법이 없습니다.

[살전 5:16-18] 항상 기뻐하십시오. (17)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 F. 우리는 분량을 정해 주시는 하나님, 곧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에 따라 우리의 일에 있어서 자신을 제한하기를 배워야 한다 — 고후 10:13-15.

[고후 10:13-15]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지 않고, 분량을 재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 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 자랑하는데, 여러분에게 간 것도 그 분량의 한계에 따른 것입니다. (14) 우리는 여러분에게 간 적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 스스로 지나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까지 나아간 사람은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15)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가지고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증가하면서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한계를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확대되어 넘치는 것입니다.

- G. 우리는 제한을 받을수록 더 규제받고 더 건강하게 된다. 활력화 되는 것은 건강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바울은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갈망했다. 바울은 기적을 의존하지 않았고, 그의 일은 ‘각 사람’의 방식에 훨씬 더 많이 있었다 — 골 1:28-29, 행 20:19-20, 31.

[골 1:28-29]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한 것입니다. (29)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행 20:19-20] 나는 모든 겹손과 많은 눈물로 노예로서 주님을 섬겼으며, 또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닥친 시련도 겪었습니다. (20) 그리고 나는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대중 앞에서나 이 집 저 집에서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으며,

[행 20:31]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내가 삼 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 H. 우리는 생명의 성장에 의해 건축되는,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반드시 생명을 유지해 주는 생명의 길 곧 생명의 노선에 머물러야 한다 — 요 10:10 하, 계 22:1-2, 엡 4:16, 2:21-22.



[요 10: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 22:1-2]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2)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엡 4: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엡 2:21-22]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 있는 성전으로 자라 가고 있으며, (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 I.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고 율조림으로 예수님을 먹고,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 영인 말씀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공급함으로 생명의 길에 머문다 — 요 6:57, 63, 엡 6:17-18, 램 15:16, 시 119:15와 각주 1, 마 4:4, 24:45, 고전 2:4-5, 13.

[요 6: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요 6: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엡 6:17-18]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겹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램 15:16]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 주님의 말씀이 제게 /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 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시 119:15] 저는 주님의 법도들을 율조리며 / 주님의 길들을 존중하렵니다.

[마 4: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24:45]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전 2:4-5] 내가 나의 말과 선포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 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한 것은 (5)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고전 2:13] 우리는 또한 이것들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말하지 않고, 그 영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말합니다.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 III.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빌라델비아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길은 생명으로 이끄는 비좁은 길이다 — 계 3:7-13.

[계 3:7-13]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거룩한 이, 참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록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8) 나는 너의 일을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9) 보아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 주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11)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12)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13)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 A.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의 특징은 형제 사랑이다(계 3:7-8). 사랑이 그들 가운데 편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운을 북돋아 주는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엡 4:11, 5:29, 행 20:28)으로 그들을 보양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목양한다(벧전 5:2).

[계 3:7-8]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거룩한 이, 참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록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8) 나는 너의 일을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엡 4:11]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엡 5:29]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양하고 보살피 줍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

[행 20:28]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 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 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벧전 5:2]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며, 비열한 수단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탐내어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며,

- B. 빌라델비아에서의 주님의 회복은 질에 있어서의 회복, 곧 교회의 원래 실질이자 하나님의 내적 실질인 사랑(요일 4:8)의 회복이다. 하나님은 참된 터, 곧 교회의 터 위에 서는 것은 모든 형제를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계 3:7 상, 비교 2:4, 7).

[요일 4:8]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계 3:7]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거룩한 이, 참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록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계 2:4]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 C.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회복의 확산을 위한 문을 여시는 것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또한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셔서 주관적으로 우리의 내적 존재의 문을 여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지닌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건축되게 하신다 — 계 2:17, 3:12, 비교 21:22.

[계 2:1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계 3:12]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계 21:22] 나는 성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1.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기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나의 하나님의 성의 이름’은 기둥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가리키며, ‘나의 새 이름’은 기둥이 새로운 의미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킨다. 기둥인 이기는 이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되며, 체험적으로 새로운 의미로 그리스도가 된다 — 계 3:12.

[계 3:12]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2. 새 예루살렘은 새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확대와 확장인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새로운 의미의 그리스도이다. 새 그리스도는 사복음서의 그리스도와 같지 않다. 신랑의 증자인 신부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모든 이들을 포함한다 — 요 3:29-30, 계 21:9-10.

[요 3:29-30]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곁에 서서 듣는 신랑의 친구도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합니다. (30) 그분은 증가하셔야 하고, 나는 감소되어야 합니다.

[계 21:9-10] 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십시오.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3.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고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되며 새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에는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는 요소가 담겨 있다 — 롬 8:2, 눅 18:27, 비교 창 28:12-19, 요 1:51.

[롬 8: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눅 18:27]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창 28:12-19]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다. (13)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곧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다. (14) 너의 씨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15)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16)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몰랐구나.” (17)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구나.” (18)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뺀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19)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벰엘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요 1:51]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 D.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은 일보다 생명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양보다 질에 더 관심을 둔다(비교 고전 3:12).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에 달려 있지 않고, 그분을 위하여 그들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 있다(계 3:8, 막 14:8).

[고전 3:12]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계 3:8] 나는 너의 일을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막 14:8]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장사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기름을 바른 것입니다.

- E.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은 주님의 유일한 신약 사역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계 3:8). 주님의 유일한 신약 사역은 그들을 이끌어 그들의 생명과 모든 것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귀한 인격을 참되게 감상하고 사랑하며 누리도록 이끈다(고후 11:2-3).

[계 3:8] 나는 너의 일을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후 11:2-3]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3) 전에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나는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 F.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읊조림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여(엡 6:17-18, 시 119:11, 15)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하다’(계 3:8, 눅 12:21).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손을 드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시 119:48, 느 8:5-6).

[엡 6:17-18]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시 119:11] 저는 주님께 죄짓지 않으려고 / 제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시 119:15] 저는 주님의 법도들을 읊조리며 / 주님의 길들을 존중하렵니다.

[계 3:8] 나는 너의 일을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눅 12:21]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 두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시 119:48] 제가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들을 향해 제 손을 들고 / 주님의 율례들을 읊조리렵니다.

[느 8:5-6] 에스라가 (온 백성보다 높이 있어)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책을 폈다. 그가 책을 펴자, 온 백성이 일어섰다. (6) 에스라가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온 백성은 모두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를 숙여 절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 G.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의 다른 모든 이름을 버렸고,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풍성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롬 10:9-10, 12-13).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빌 2:11), 그들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그들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믿는 이들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한다(고후 4:5).

[롬 10:9-10]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10)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롬 10:12-13]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13)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빌 2: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고후 4:5]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 H. 리 형제님이 애너하임에 있는 장로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 “장로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서로 사랑해야 하며, 서로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

#### IV. 일단 빌라델비아가 타락하면 라오디게아가 된다 — 계 3:7, 14.



[계 3:7]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거룩한 이, 참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록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계 3:14]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아멘이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이가 이렇게 말한다.

A. 라오디게아는 왜곡된 빌라델비아이다. 형제 사랑이 사라질 때, 다수의 의견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견이 된다. 다수가 찬성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B. 주님께서 보시기에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미지근함과 영적 교만이다 — 계 3:15-18.

[계 3:15-18] 내가 너의 일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거나 뜨겁기를 원한다. (16)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17) 네가 ‘나는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18)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불에 제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

1. 영적 교만은 역사(歷史)에서 온다. 어떤 사람은 한때 풍성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풍성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지만 그들의 이전 생활은 잃어버렸다.
2. 주님은 한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지만 지금은 그 실재를 잃어버렸다. 그들은 한때 그들이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지금 그들은 가련하고 눈멀었다.

C. 우리가 계속해서 빌라델비아의 길에 머물고 라오디게아가 되는 것을 피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마 5:3, 사 57:15, 갈 6:3.

[마 5:3]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 57:15] 높고 드높으신 분, / 영원 안에 거하시며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 또한 통회하는 이와 겸허한 영을 지닌 이들과 함께 거하여 / 겸허한 이의 영을 소생시키고 / 통회하는 이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갈 6:3] 만일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D.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실지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뜨겁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라오디게아는 명목상으로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그 무엇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없다. 라오디게아는 이전의 자신의 영광은 기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는 잊어버린다. 이전에 그것은 빌라델비아였지만, 지금은 라오디게아이다 — 계 3:15-18.

[계 3:15-18] 내가 너의 일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거나 뜨겁기를 원한다. (16)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17) 네가 ‘나는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18)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불에 제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

1.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에게는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에 속한 지식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신성한 요소에 참여하게 하는 살아 있는 믿음은 그다지 많지 않다.
2. 흰옷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교회가 살아 낸 주님 자신이며,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가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덮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3. 그들의 눈에 발라야 하는 안약은 기름 바르시는 그 영(요일 2:27)임이 분명하며, 이 영은 생명 주시는 영(고전 15:45 하)이신 주님 자신이다.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는 자신의 눈먼 것을 치료하기 위해 이러한 안약이 필요하다(비교 욥 42:5-6).

[요일 2:27]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고전 15: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욥 42:5-6] 제가 주님께 대해 귀로만 들어 왔으나 /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뵈었습니다. (6) 그러기에 제 자신을 혐오하며 /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 E. 죽은 공허한 지식과 교리적인 의식은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를 미지근하게 만들었다. 이 교회는 다시 그리스도의 실재를 누릴 수 있도록 미지근한 것을 회개해야 하며, 열심을 내고 끓어오르며 불타야 한다.
- F.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 계 3:21-22.
  - 1. 여기에서 이긴다는 것은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의 미지근한 것과 교만을 이기는 것이고,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다. ‘내가 이기고 나서 ... 같이’는 유일한 이기는 이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기는 이들을 포함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 2. 주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는 것은 이기는 이가 받는 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기는 이가 주님의 권위에 참여하고 장차 올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공동 왕이 되어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다.